우리생약 살리기 열기가득

4천명 재배농민 「생약인의 다짐」 낭독

구랍 19일, 올림픽 역도경기장은 4천여명 약초재배농민들의 「우리 생약재 살리기」 열기로 가득했다.

우리 생약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제1회 우수국산 한약재 전시회에서 한국생약협회는 「우리생약재를 살리기 위한 생약인의 다짐」을 채택함으로서 우리생약 살리기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생약인의 다짐을 통해 협회는 세계 최고의 고품질 약재생산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 생약을 살리며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 국내생산이 가능한 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밀수 등으로부터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생약협회는 따라서 △생약재배기술보급 △전략수출품목 계약재배 △고품질 고부가가치 생약의 개발연구 △내수용 생약의 하한가 계약재배 △자연생약 보존을 위한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 등의 사업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행사에서 처음 선보인 한약재를 이용한 방향제와 베개가 좋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 다른 아이디어 상품도 개발해냄으로서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우리 생약재의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값싼 수입약재로부터 우리 약재를 지켜나가자는 우리생약살리기는 지난해 3월부터 협회차원에서 꾸준히 벌여온 농촌살리기 운동이다. 그간의 성과로는 지난해 협회가 종근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한 지황의 조직배양 연구결과를 들 수 있는데 재래품종에 비해 2배 이상의 평당 수확량을 보임으로서, 현재 95%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황을 3년이내에는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우리생약재를 살리기 위한 생약인의 다짐

우리는 우수한 생약재를 생산 공급해온 생약재배 농민 단체로서 세계 최고의 고품질 약재 생산을 통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상대대로 이어 내려온 우리 생약을 살리며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생산자의 본분인 고품질 생약 생산에 최선을 다하여 수입약재에 대응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생약재를 적절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하므로써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국내 생산이 가능한 약재의 무분별한 수입이나 밀수 등으로 부터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생약 살리기 운동을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한다.
- 맑은물, 좋은 토양은 무공해 청정약재 생산의 기본이 되므로 그린스카우트의 환경보전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생약재배 농민의 생산의욕을 위협하는 보사부의 규격화 고시는 절대 부당함을 천명하며 생산자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한다.

약초재배 포기해선 안된다

〈下〉

우리가 약초재배를 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로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나 다른 이유도 얼마든지 많다. 이제부터는 농가가 이렇도록 중요한 약초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기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소비자, 생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정부에서는 생산을 권장하는 농림수산부와 소비를 관장하는 보건사회부가 부서 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생약재의 안정적 생산및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생약재마다의 연간 소비량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농수산부에서는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에서 계획생산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무계획한 재배면적의 축소, 확대는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지므로 재배농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사부에서는 품질의 규격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학적 품질평가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중국산과 비교하여 정품과 진품을 식별하는 수단만이라도 과학적인 평가방법이 있어야 한다. 요즘 한약재의 규격화나 한약재관리 규정이니해서 시끄럽기만 하지 과연 절단, 포장의 규격화를 가지고 국민건강과 유통질서확립이라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고

농업특별세 등 재원통해 생산농가 지원 확대해야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특별세등 재원을 통해 생약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생산기반이 안정될때까지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소, 시험장, 대학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품질이 탁월한 품종의 개발,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 야생약초의 소득작물화 연구는 물론 수요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공품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값싼 재료를 써야한다는 이유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좀더 원시안적으로 장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 품질면에서 양질의 생약재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 될 것이다.

수입품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외관이나 품질의 생약재를 제한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국립연구소나 대학에서 장기화된다면 우리 농학분야에서라도 그 분야 연구에 절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소비(수요) 개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약학계열의 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의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품목만이라도 우선 전량 사들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수입을 거론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재배농민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농민도 홀로서기 연습에서 실습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지원시책으로 돌봐 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제는 국가간에 자국농민 보호도 중요한 약초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을 보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하기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소비자, 생산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먼저 정부에서는 생산을 권장하는 농림수산부와 소비를 관장하는 보건사회부가 부서 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우리 생약재의 안정적 생산및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생약재마다의 연간 소비량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농수산부에서는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실정에서 계획생산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무계획한 재배면적의 축소, 확대는 가격불안정으로 이어지므로 재배농민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보사부에서는 품질의 규격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학적 품질평가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중국산과 비교하여 정품과 진품을 식별하는 수단만이라도 과학적인 평가방법이 있어야 한다. 요즘 한약재의 규격화나 한약재관리 규정이니해서 시끄럽기만 하지 과연 절단, 포장의 규격화를 가지고 국민건강과 유통질서확립이라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업특별세등 재원을 통해 생약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최소한 생산기반이 안정될때까지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소, 시험장, 대학등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품질이 탁월한 품종의 개발,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 야생약초의 소득작물화 연구는 물론 수요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공품의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도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값싼 재료를 써야한다는 이유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좀더 원시안적으로 장래를 내다봐야 할 것이다.

최소한 국내에서 생산 품질면에서 양질의 생약재를 생산하고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 될 것이다.

수입품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외관이나 품질의 생약재를 제한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국립연구소나 대학에서 장기화된다면 우리 농학분야에서라도 그 분야 연구에 절실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소비(수요) 개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약학계열의 이 충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가의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품목만이라도 우선 전량 사들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수입을 거론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재배농민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이제 우리농민도 홀로서기 연습에서 실습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충분한 지원시책으로 돌봐 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이제는 국가간에 자국농민 보호도 생약재는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마다 적용하는 생태형이 다르므로 적지에 적품목을 선정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단지화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협의체(단체)를 구성하여 영농기술정보의 교환, 공동작업, 공동판매, 공동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는 길을 스스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 농산물도 공산품의 개념에서 최소한의 생산비와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선에서 품목마다 적정거래 최소가격이 농민선에서 도출되어야 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투기심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부언하건대, 이를 위해서는 요즘 거론되고 있는 한약재관리 규정제정에 농민의 소리가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성 낙 술

〈농진청 작물시험장 약물작물과〉

중앙회원 가입안내

본회에서는 생약생산자, 생산단체, 생약에 관한 조예있는 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자격 : 생약재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혜택 : 1) 생약에 관한 생산지도
2) 생약 및 생산 가공품의 공동 판매 알선
3) 생약의 수출·입알선
4) 한국생약보(시세표포함)제공

◉구비서류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증명사진 2매
4) 회비
월 3,000원×12개월=36,000원
가입비 10,000원 합계 : 46,000원

※가입문의 : 협회 사무국 전화(02) 967-8133

전시회 행사에 협찬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중앙제약	박인환	△옴한당건재한약국	허남운
△웅진약업	이종용	△보광약업	남궁희
△광동제약	최수부	△원주당약국	이재기
△두루기계통상	김재동	△수생당한의원	양상은
△동부재료상사	유하근	△용운한의원	이철희
△홍일약업	송경태	△보신상회	정인근
△천일약업	황인구	△유림물산	김인태
△천일약업	유진걸	△신한물산	하종석
△유진약농	임석곤	△세일상회	류용식
△형제약업	남정룡	△만수상회	정성덕
△한미생약사	구자춘	△천우물산	정영기
△세웅산업	박재문	△황도물산	황선기
△목청제약	신광철	△삼화물산	김덕정
△극동약업	방기생	△명문물산	이상국
△우성양행	최용두	△우진물산	김석철
△한미한약방	전종원	△삼오상회	황선영
△중앙제약(이사)	윤여진	△풍성물산	조웅재
△초원물산	안재인	△안흥물산	안의도
△능원물산	김형진	△동일한의원	이희수
△대진산업	윤석구	△부흥한의원	박찬영
△평화한의원			